

제주와 몽골의 ‘돌 신앙’ —신체(神體)의 산육신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안나*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주와 몽골의 돌 신체(神體)의 산육신적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주와 몽골의 포태와 산육신의 기능을 하는 신체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역의 산육신으로서의 돌 신체는 자연신앙을 기반으로 만물에 영(정령)이 거한다는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하지만, 몽골의 경우 페티시즘 및 원시 주술적인 신앙 형태를 좀 더 많이 띤다. 둘째, 두 지역의 자식의 포태와 산육을 돕는 생산신으로서의 바위 신체는 주로 모신(母神)의 특성을 가지며,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셋째, 제주의 기자지성의 돌 신체는 주로 ‘미륵’으로 불리는데, 이는 전통적인 용신앙과 관련되며 칠성신앙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는, 기자신앙의 신체는 생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대지신앙—지모신 신앙과 관련이 있다. 넷째, 두 지역 모두 포태와 산육신은 여성신격이 지배적이지만 남성신격도 이에 관여한다. 다섯째, 제주의 기자 신체는 무속적 자연신체이면서도 미륵으로 불리거나 절에 모셔지기도 하며, 유·불·무교의 제의의 대상이 되는 혼합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그 중심은 무속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이에 반해 몽골은 거의 무속의 자연신앙 형태가 중심을 이룬다. 여섯째, 두 지역 모두 자연석을 신체로 삼는데, 제주의 경우 자연석이면서 조약한 인간의 얼굴 모습을 새겨 넣은 것도 있고, 인공적인 석상인 경우도 있다. 몽골의 경우는 대부분 자연석이지만 주로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진 바윗돌이 신앙시되어 왔다. 또 무덤에 세워졌던 석인상도 모신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두 지역에 기자신앙의 대상이 되는 돌 신체의 양상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무속을 근간으로 한다는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주, 몽골, 무속, 신체, 미륵, 용신앙, 어머니 바위

* 강남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기

고대로부터 돌이나 바위(굴)는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주는 도구요, 처소로서 인류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왔다. 견고함과 항구성을 가진 돌에는 초자연적인 영험함이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돌을 영적작용의 도구로서, 그들 자신이나 죽은 자를 방어해 주는 에너지의 중심으로서 숭배하고 또는 이용하였다.”¹⁾ 돌은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전 과정에 관여되며, 대지에 속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기원한 천상의 신령한 것으로 관념되기도 했다.

돌이 인간 탄생에 관련을 갖는 것은 “어떤 돌은 혼자서 탄생하고 번식”²⁾하며, “인간이 태어날 수 있고, 돌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잠재해 있으며, 인간이 성스러운 돌로 변할 수 있다.”³⁾고 여겼기 때문이다. 잉태의 주술물이 주로 돌로 나타나는 것은 우주적 생명력과 생명수의 근원이자, 달의 원리를 내포한 돌의 모태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고대인들은 돌에는 영혼을 머물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죽은 자의 영혼이 돌에 거하며, 돌은 죽은 자의 집”, “선조의 석화된 정령”⁴⁾으로 생각했다. 한편 돌은 조상신의 거처뿐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떠도는 혼을 붙잡아 두어 살아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기도 했다.

몽골인들은 예로부터 죽을 때가 되면 “게르가 멀어지고, 바위 집이 가까워진다.”⁵⁾라고 했다. 이것은 동굴이나 바위에 시신을 두었던 장례습속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대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돌에 영혼이 깃든다⁶⁾는

1)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1997), 『종교형태론』, 298쪽.

2) 위의 책, 303쪽.

3) 진쿠버, 이윤기 옮김(2000),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333쪽.

4) 엘리아데, 앞의 책, 301~302쪽.

5) Д. Цанаан(1993), 『Чулуун соёл, Өвөрмонгол』, 187쪽.

관념에서 비롯된 말이라 할 수 있다. 돌에 깃든 조령은 제의를 받음으로써 후손들의 번성과 치병을 돕고 삶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수호신이 되어왔다. 죽은 자의 영이 머무는 바위는 곧 새로운 생명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고대로부터 몽골인들은 바윗돌에 치성을 드리며 자식의 복을 구하는 습속이 보편적으로 있었다. 자식을 자주 유산하거나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는 바윗돌에 치성을 드리며, “높고 신령한 바위시여, 자식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식 갖기를 소원했다. 또 높은 산이나 자연풍광이 좋은 곳에 돌무지를 쌓고 ‘어린아이 오보’라 하여 신앙시하였으며, 구멍이 있는 바위에서 작은 돌을 주워 올려 치성을 드렸다.⁶⁾ 이렇게 바위는 여성성, 생산성, 풍요, 재생의 상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기자신앙의 주 신앙적 대상이 되어왔다.

돌은 이렇게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통과의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인류 역사의 가시적인 실생활에서 비가시적인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의미를 지녀왔다. 본 논의에서는 제주와 몽골의 돌 신앙에 한정하여 다루었는데, 그것은 두 지역 모두 전통적으로 자연신앙이 크게 발달하고, 돌 문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에 근거하였다. 두 지역의 돌 신앙 가운데 기자신앙과 관련된 돌 신체(神體)의 산육신적 양상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Г. Гонгоржав(2005), 『Монголчуудын чулуун өв соёл』, УБ, 219쪽.

7) Д. Цагаан, 앞의 책, 126~128쪽. 몽골에는 구멍이 난 자연석을 ‘어머니 자궁’이라 하여 신앙시하는 풍속이 널리 퍼져있다.

2. 제주의 돌 신체의 산육신적 양상

화산 시대인 제주의 삶은 돌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바람과 돌이 많기 때문인지 신들도 바람신(풍신), 돌신이 많다. 돌은 단단한 속성과 영구성으로 다양한 생활의 이기로 사용되었지만, 실용적 가치뿐 아니라 돌 자체의 근원적인 상징성으로 인해 자연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무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돌은 신당의 여러 부분에서 쓰이면서 신당의 외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신체(神體)로 모셔지면서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⁸⁾ 돌이 신체가 되는 것은 돌에 영혼이 거한다는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 산방산의 산방덕이의 전설은 이러한 관념을 보여주며, 또 돌이 된 산방덕이는 기자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신앙시되었다.⁹⁾ 제주에 굿이 성할 때 심방을 빌어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불도굿을 할 때 오백장군이 있는 영실이나 산방산에 와서 굿을 했다고 한다.¹⁰⁾

이러한 돌 신체 가운데 돌미륵은 기자신앙의 대표적인 신체로 자식을 포태시켜 주거나 자식을 돌봐주는 생산적 모신(母神)인 경우가 적지 않다. 생산과 산육을 담당하는 신은 돌 신체 이외에도 신목(神木)이나 신혈 등이 있고, 돌미륵이라 하여 항상 포태와 산육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주 무속에서 기자신앙은 미륵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미륵은 전통적인 ‘미르’ 즉 용(龍)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8) 강정식(2006),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78쪽.

9) 산방덕이는 한라산 산신의 딸이었으나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갖고 고승이라는 충각과 사랑을 한다. 그러나 마을 사또가 산방덕이의 미모를 탐해 고승을 잡아가고 산방덕이를 취하려 하자 그녀는 돌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산방덕이가 사는 동굴 위쪽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아 마시고 기도를 드리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속신이 전한다.

10) 양영자(2009), 「통과의례와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766쪽.

미륵들은 용신앙 및 기자신앙, 불교의 미륵신앙이 습합된 신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미륵불은 물이나 용과 관련하여 기자신앙과 관련된 예가 적지 않은 데,¹¹⁾ 이러한 미륵신앙은 출생과 죽음과 관련된 칠성신앙과 습합되면서 불교적이기보다 민간신앙적인 특성을 많이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²⁾ 이렇게 전통적인 기자석의 돌신앙은 용신앙, 미륵신앙, 칠성신앙이 결합되어 포태와 출산의 신앙적 형태가 되어왔다.

제주의 산육신의 신체인 돌미륵은 산신계와 수신계의 무속적인 것과 유불무 습합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천신, 산신계 신체(神體)

제주의 산은 한라산과 오름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지대 영역은 '산신백관'의 신역으로 신화적으로 보면 상계(上界)에 해당하며, "산신백관은 순백한 남신(男神)"¹³⁾이 지배적이다. "산신은 일반적으로 여신이라 생각하지만, 제주도의 산신은 '하로산또'라는 남신이다."¹⁴⁾ "제주의 산

11) 충남 보령군 대천읍 내향의 미륵불은 백제왕이 용왕에게 빌려 왕자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여 많은 이들이 치성을 드리고 있다고 하며, 고려시대 충남 보령군 대천읍 내향의 미륵불은 용왕신앙과 습합된 득남을 기원하는 미륵신앙의 형태이다. {김삼룡(1987),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58쪽}

12) 제주뿐 아니라 예로부터 한국의 미륵신앙은 기자신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미륵신앙은 첫째, 죽은 자를 위해 미륵상을 조성하고, 둘째, 현실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미륵을 신앙한다. {박진태 외(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55쪽} 이것을 보면 미륵신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는 복두칠성 신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권은 운주사의 칠성바위와 와불(미륵불), 백제 무왕대 창건한 미륵사의 회랑지, 강당지의 주춧돌 표면에 새겨진 옷관 그림(복두칠성), 미륵산 산정의 투구바위 윗면에 복두칠성을 닮은 성혈 등의 예를 통해 복두칠성신앙과 미륵신앙의 관련성을 논했다. {김일권(2008), 『우리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424-433쪽 참조}

13) 진성기(1980), 『탐라의 신화』, 평범사, 11쪽.

14) 문무병(2008),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99쪽. '하로산또'는 '한라산

신은 수렵, 목축신의 기능을 갖고, 산육·치병의 기능은 여신인 일똥할망이 갖고 있어 역할 부담¹⁵⁾이 되어 있지만, 한라산 남신이 산육에 관련하는 것은 한라산을 어머니로 신앙하는 원시적 모계관념이 생산신으로서의 돌 신앙과 습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하로산또의 배경에 어머니 한라산이 근원적으로 존재하며, 어머니 한라산의 산육적 특성이 돌 신체를 통해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름 가운데 신이 좌정하여 제의가 이루어지는 곳을 흔히 당오름이라 하는데, 천신계인 ‘조천면 ‘와산리 웃당 한집’은 천상에서 귀양와 와산리 당오름의 바윗돌에 좌정한 옥황상제의 막내딸이다. 이 자연석신상은 “아이를 낳게 하거나 부자가 되게 하는 신의 영험과神通력이 있어 ‘미륵’이라 했고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¹⁶⁾

웃당 한집 당오름 좌정한 옥황상제 딸짓말애기 금시상 귀양오라. 당오름 상상봉오지로 좌정하여 큰 왕석으로 피가 흘렀습네다. 즈식 엮는 예즈가 “이 당이 영급이건 포태를 시겨 주십서.”하니 그 예즈가 포태가 되어서, 그 당에 제를 지내저 하니, 그 당 이신 상상봉오질 올라가질 못하니, 이젠 “영급이거들랑 당오름 알레레 췌안흔 데레 느려 왕 좌정하시민 제를 지내 췌습네다.” 그 말이 곧 떨어지니, 그 돌이 알레레 둥그러오라 좌정하였습네다. 이제 즈식 엮는 사람이 그디 가서 수륙 올리민 즈순탄싱 포태를 줍네다. 열이불두또 한집입네다.¹⁷⁾

제주의 신당에 모셔진 신체를 보면 대부분 신체가 돌이나 나무이지만, 그 가운데도 지배적인 것은 돌이라 할 수 있다. 자연석에 간단한 눈과 코, 입을

에서 솟아났다’는 토착신이며, 도민들은 이들을 ‘조상’이라 부른다.(문무병, 같은 책, 100쪽)

15) 위의 책, 100쪽.

16) 문무병(2002), 『제주문화예술』 겨울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지회, 70쪽.

17) 진성기(200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364-365쪽.

새겨 신체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석은 큰 자연석 그대로 신체로 모셔져 신봉된다. 이 신체는 천모(天母)로서 산신이자 지역을 관장하는 마을신의 역할을 하는 상당히 고대 신앙형태를 보여준다.

고명선 본에는 불도삼승도(佛道三乘圖), 옥황상제 말갯딸아가기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 눈에 나서 이 세상에 귀양을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이 문점을 하니 뜬금없이 솟이난 큰 돌을 위하라고 하여 당오름 상상봉에 올라 제를 지낸 후에 포태가 된다. 날 달이 차서 제를 올리려고 오름에 오르다 다리가 아파 “저 우회 이신 조상님이 영급이 잇건 요만이나 오랑그네 좌정하여시민 우리 즈손덜토 흐쉴 털 못즌덜 일 아니우과?”라고 하며 힘이 드니 조금만 내려와 줄 것을 청한다. 여자가 득담을 하여 다시 제를 지내려고 가서 보니, 일전에 쉬면서 축수했던 곳에 미륵상돌이 내려와 있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가보니 폭낭(뽕나무) 아래로 좌정하여서는 삼월 열사흘날 제의를 받으며 자식 없는 사람에게 인간을 탄생시키고 자손을 돌봐주겠다고 한다.¹⁸⁾

여기서 ‘삼승도’란 삼신할머니를 이른다. 이 바위는 보기 드물게 천상계 산육신이 좌정한 신체로 지금도 기자석으로 잘 모셔지고 있는데, 신이 좌정한 큰 돌에 피가 흘렀다는 것은 돌의 얼룩문양이 여성의 달거리와 포태의 상징으로 부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신체가 상상봉에서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은 자연신앙이 갖는 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그 과정이 생략되어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진성기는 이를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¹⁹⁾ 옥황상제의 딸의 등장은 당시 사회상인 모권사회의 반영²⁰⁾으로 볼 수 있으

18)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사전』, 각, 540-541쪽. 천상기원의 당신(堂神)으로 용강동 괴당할망이 있는데, 와산리 웃당과 마찬가지로 옥황의 말갯딸로 제주도로 정배를 와서 귀 아래 좌정하여 자식에게 길한 복을 주는 한집이다.

19) 진성기 선생님께서 들은 내용.(2011.06.12)

20) 진성기(1980), 앞의 책, 41쪽.

며, 바윗돌 신체는 고대 신령한 무당의 사령(死靈)이 깃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성신인 애월읍 상가리 새당의 당신은 다섯 개의 바위로 그 중 가장 큰 바위는 산신이며, 이 신들은 모두 미륵의 신격이 부여되어 있다.²¹⁾ 이 산신은 초립동이 먹고 있는 수수범벅을 먹어보고 인간 세상에 좌절하기로 마음먹은 신으로 소란스러움과 냄새를 싫어해 정결한 ‘고내오름 큰신머들’ 바위에 좌정한다.²²⁾ 옛날에 이 당 앞으로 말을 타고 가면 말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지나갔다고 하는 매우 영험한 한라산 산신대왕²³⁾으로 자손을 보살피주는 신이다.

이처럼 한라산 산신이 돌미륵이 되어 산육신이 관련되기도 하는데, 예로부터 아기를 낳기 위해 기자불공을 하거나 산신기도를 하려면 한라산 영실당(靈室堂)에 와서 빌면 효험이 있다고 했다. 영실에는 오백장군(아라한)이라 불리는 기이한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종의 기자신앙으로서의 미륵신앙이 자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또 생존했던 사람이 미륵당의 당신으로 모셔져 산육과 치병을 관장하기도 하는데, 제주시 광령리 마씨 미륵당의 당신인 마씨하르방은 한라산에서 산신처럼 돌을 닦고 주민들의 삶을 가호했던 도사였다고 한다. 특히 이 하르방은 득남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²⁵⁾ 이처럼 산육신들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신도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한라산 산신으로 추앙되며 미륵으로 불리는 특징이 있다.

21) 위의 책, 70쪽.

22) 진성기(2002), 앞의 책, 596-597쪽.

23) 위의 책, 597쪽.

24) 문무병, 앞의 책, 70쪽.

25) 문무병 외(2008),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56쪽.

2.2. 수신계(水神系) 돌미륵

제주의 바다 기원의 해신들은 보통 잠녀나 어부들을 수호하고 관장하는 기능이 지배적이지만, 몇몇 신체들은 자연신의 속성을 띠며 산육신의 기능을 담당한다. 바다의 기원을 갖지 않더라도 물과 관련을 갖는 어떤 돌미륵은 수신(水神)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수신계 돌미륵은 돌이 갖는 생산성과 물의 생생력이 결합되어 산육신의 힘을 배가시킨다.

이도동(동과양) 미륵당은 ‘물할머니’로도 불리며, 외새미(쌈)와 관련되어 자식의 복을 주는 생불신으로 숭앙된다. 이 미륵보살 역시 자연석을 이용한 석신상이다. 옛날 이형상 목사가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술 때 미륵보살이 꺼꾸러져 있는 것을 일으켜 과양에 사는 이씨 집안에서 이 미륵보살을 모시는 당을 설립했다고 한다. 하루는 앞 절간의 스님의 꿈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나의 군졸이 내 혼자만이 아니다. 대음부떠랑 메도 시 그릇 흥영 위흐라.”²⁶⁾ 고 하여, 이 미륵당에 갈 때는 메 세 그릇을 해서 간다. 이 당신은 자식 복을 주고, 자식들을 가호해 주는 여성신이다. 당에 갈 때는 해 뜨기 전에 ‘외새미’의 생수를 떠가는데, “수덕 좋은 외새미 물할머니 엇인 애기도 내와줍서. 엇인 맹도 이수와줍서, 엇인 복도 제겨줍서.”²⁷⁾라고 하며 송낙을 집어 썬우고 명실을 감고 채를 올린다. 이 할머니 돌미륵은 생사회복과 자식 잉태를 주관하는 복두칠성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신격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돌미륵들은 보통 바다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제주의 생활방식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한편 전통적인 용신앙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용왕은 ‘요왕또’, ‘용녀부인’, ‘요왕국대부인’이라 하여 바다 밑을 관장하는 해전 수호신으로 칠일신과 출신이 같다.²⁸⁾

26) 진성기(2002), 앞의 책, 325쪽.

27) 위의 책, 325쪽.

28) 문무병(2008),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312쪽.

칠일신이란 이렛당신을 말하며, 주로 출산과 치병을 담당하는 신격인데, 바다에서 등장하는 미륵신들은 종종 산육과 부를 관장하는 기능을 한다.

<현씨일월본풀이>를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돌미륵이 여성으로 변신하여 출산과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조상신이 되기도 한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화북 안씨 큰댁의 넷째아들이 화북 아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 (나) 바다에 낚시줄을 던지니 바위가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아, 낚시줄을 모아 끊고 새 낚시줄을 던져도 또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로 걸리자 같이 갔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당기니 은진미륵 돌부처가 올라왔다.
- (다) 화북 중동 안씨선주가 미륵의 손에 있던 백지를 펴보니, 현씨일월 아기씨가 바닷가 바위에 3년을 살고 은진미륵으로 환생하여 처음 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앞으로 백일이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씌워있었다.
- (라) 안씨선주 셋째아들이 주야로 돌부처를 지켰는데, 100일이 되어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집으로 가보라 한다.
- (마) 잠에서 깨어 보니 은진미륵이 섬돌(울룩돌룩한 돌)로 변색되어 있었다. 그 길로 집에 가니 돌미륵 같은 총각머리를 한 거지가 달려들어 밥을 달라고 한다.
- (바) 부엌에 가서 데운 물을 주려고 솥을 열자 금, 은, 옥인듯 솥 안이 환해졌다.
- (사) 무식하고 눈 밖에 난 셋째 아들과 거지가 혼인을 하니, 여자의 모습이 고와졌다.
- (자) 함께 살면서 삼형제를 낳는데, 자식들이 문선급제, 장원급제, 전라감사가 되고 화북, 중동 지역을 모두 차지하는 큰 부자가 된다.
- (차) 현씨일월은 미륵이 섬돌로 환생하여 안씨댁에 좌정하여 단골을 맺어 신년 과세문안을 받는데, 주당(主堂)의 흥함이 되고 좋지 않으면 신체에 금이 나고 습기가 생기며, 이것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증거이다.²⁹⁾

안씨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모시는 현씨일월은 이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29) 현용준(2007), 앞의 책, 714~716쪽.

미륵들이 변한 여인이다. 이것은 자연물과 인간이 상호 변형될 수 있다는 원시적 관념을 반영해 주면서, 또한 미륵이 수신신앙(水神信仰)과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³⁰⁾ 이 신화에서 술 안이 환해지는 사건은 거지여인이 집안의 복신(福神)으로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여성은 수신적 속성과 물의 생산신적 특성으로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격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변씨일월조상본>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 (가) 옛날 변씨 조상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더니 고기는 아니 물고 석상 미륵만 낚싯대에 올라왔다.
- (나) 변씨는 낚싯대에 올라온 석상미륵을 떼어 던지고 다시 던지고 하였으나 또 올라왔다.
- (다) 변씨는 이상히 생각하고 그 석상미륵을 가져다 마당에 버렸더니 그날 밤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 주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하고 사라졌다.
- (라) 변씨는 이상히 생각하고 이튿날 그 석상미륵을 찾아보았으나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남루한 여인이 나타났다.
- (마) 변씨는 그 여인을 어여뻐 여겨 함께 살기를 청해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후손이 잘 되었다고 한다.
- (바) 그녀는 그 변씨 집안의 수호 조상신이다.³¹⁾

위 본풀이의 ‘일월’이란 하늘의 ‘빛나는 햇살처럼 달빛처럼 환히 비춰주는 조상신’을 뜻한다.³²⁾ 위의 두 본풀이는 모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바다에서 가져온 석상미륵이 남루한 여인으로 변해 어떤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 후 남자 집안이 번창했다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것은 용신앙과

30) 장지훈의 삼국유사 백제무왕설화와 관련되는 미륵사 연기설화를 들어, 미륵불이 큰 연못에서 솟아나오는 모습은 미륵불의 수신적 성격은 말해주는 예로 보았다. {장지훈(1997), 『한국고대미륵신앙 연구』, 집문당, 233쪽}

31) 진성기(2002), 앞의 책, 138쪽.

32) 위의 책, 303쪽.

미륵신앙, 여성을 업으로 여기는 관념이 결합되어 형성된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바다에서 올라온 돌미륵으로는 ‘서물당신’, ‘서문하르방당’ 등이 있다. 구좌읍 서김녕 해안가에 있는 ‘서문하르방당’은 바다에서 주워온 돌미륵을 모시는 신당으로, 이 당에 가서 빌면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 제단에 모신 돌미륵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는 신체이며 기자석으로, 이 신당의 당신은 기자·산육신이다.³³⁾ 이 당은 ‘남당하르방당’이라고도 하며, 특별히 득남을 기원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택일해 가서 자식 낳기를 소원한다. 심방은 바라로 점을 치는데, 두 개가 모두 뒤집어지면 딸이고 두 개 모두 엮어지면 아들이라 한다. 만일 하나가 뒤집어지고 다른 하나가 엮어지면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³⁴⁾ 이 당신은 남신으로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온 은진미륵이다.³⁵⁾ 즉, 외래신이 생산신의 기능을 하는 예이다.

조천면 함덕의 ‘서물당신’도 고기를 잡으려다 낚시줄에 걸려온 미륵이다. 서물날(음력 11, 26일) 김동지 영감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는데, 어망에 고기는 물리지 않고 석상미륵불이 올라온다. 떼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또 올라왔다. 세 번째 올라오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배에 실어 올렸다. 그러자 돌이 스스로 걸음을 걸어 폭낭알로 좌정한다. 김동지영감이 음식을 차려다가 대접하니 영감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자손이 번창했다. 그로 인해 함덕 신흥리 열세 거리에서 모두 그당을 위했다³⁶⁾고 한다. 이 신당의 당신은 용왕 황제의 말쑥말래기로 풍요신이자 산육신이다. 김침지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삼일을 바다에 나갔는데, 은진미륵 석상보살이 자꾸 올라오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자니 할아버님 꿈에 자신이 동해용궁뜨님애기인데 은

33) 문무병(2008),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189쪽.

34) 장혜련(2009), 『인문주간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현장답사자료집, 3쪽.

35) 문무병(2008), 『제주신당조사』, 앞의 책, 67쪽.

36) 진성기(2002), 앞의 책, 369쪽.

진미력들로 변신하여 함덕 어부 해녀 자손들이 서물날로 자신을 위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이 조상을 위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부나 해녀가 바다에 나갈 때 이 조상을 위하니 하는 일이 잘 되어 서물날 올라온 은진미력을 서물한집으로 공경하게 되었다³⁷⁾고 한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돌미력은 기자신앙의 대상이 되어 포태, 산육신 이외 집안이나 마을의 부신(富神), 풍요신 등의 기능을 한다.

2.3. 유·불·무 습합의 돌미력

미력은 원래 전래적인 돌신앙과 용신앙과 습합되면서 기자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민간신앙의 돌미력 신앙은 완전히 불교적인 것이라 할 수 없지만, 미래불인 미력의 관념을 내포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민간신앙 속의 자연 신체가 절로 들어가거나 불교적인 색채와 혼합되어 신앙시되는 경우가 있다.

화북 화천의 화천사 경내에 오석불은 현무암 자연석에 얼굴 모양을 간략하게 새긴 신들로 유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300년 전부터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전해진다. 이 석불에 기자치성을 드리면 득남한다고 하여 주로 여성들이 새벽에 새미물을 올려 기자치성을 드려왔다. 현재 오석불을 모신 화천사 경내에는 해마다 유교식 마을제인 석불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다른 포제와 다른 점은 백지로 만든 송낙을 씌우고 종이옷을 입히고 무명실로 허리를 맨다는 점이다.³⁸⁾ 이것은 무속이 불교뿐 아니라 유교와도 습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성은 기자(祈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³⁹⁾ 무속적 관념이 기본이 되고 있음을 보여

37) 위의 책, 370쪽. 고명선 본에는 김첨지의 꿈에 자신은 용왕국 무남동녀 딸이기인데, 인간 자손을 도와 키우자고 인간에 탄생하였다고 말한다.(현용준, 앞의 책, 532쪽)

38) 장혜련, 앞의 자료, 2-3쪽.

39) 강정식(2006),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84쪽.

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 무속에서 보면 반드시 여성만 생산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 용담동 용화사에 있는 서자복은 남성신격이지만 포태를 돕는다. 이 석미륵은 무속의 자연석 혹은 돌미륵 신체와는 달리 불교와 토속적인 신앙의 형태가 혼합된 비교적 큰 인공 석신상이다. 서자복이 있는 용담동 일대 사람들은 이 미륵불을 ‘큰어른’이라 부르고, 수덕 있는 미륵이라 하여 득남을 위한 기자치성에 영험함을 보이고,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도 미륵불이 이를 막을 수 있어 이 동네만은 무사했다고 한다.⁴⁰⁾ 서자복 옆에는 높이 70cm 정도의 남근을 상징하는 동자불이라는 작은 석상이 있는데, 여기에 걸터앉아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고 전해온다. “아이 없는 부녀자들이 밤에 몰래 이곳에 와서 기원을 하고 이 양석(陽石)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킨다.”⁴¹⁾고 했다. 이것은 감염주술의 대표적인 형태로 원시 자연신앙이 불교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미륵불은 용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용화사 경내에 있는 서미륵(서자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용왕각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철거되었지만 이것은 서미륵이 용왕 신앙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⁴²⁾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 건립동에 있는 동자복은 서자복과 함께 제주 성안을 수호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민간에서 기자 치성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미륵은 ‘자복신’ ‘자복미륵’ ‘큰 어른’ 등으로 불리며, 특별히 정해 놓은 제사일은 없으나 미륵에 치성을 드려 득남한 여인들이 조상처럼 극진히 모신다고 한다.⁴³⁾ 서자복과 동자복은 불교의 부처상도 무속의 신상도 아닌 중간 형태를

40) 제주대학박물관·제주시(1992), 『제주시 문화유적』, 169쪽.

41) 오출세(1997), 「한국 성석신앙에 대한 일고」, 『동악어문논집』 32집, 동악어문학회, 259쪽.

42)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gc/content>.

떠며, 유교식 제사가 바쳐지는 혼합적 성격을 띠는 매우 독특한 신체이다. 화천사의 오석불이나 서자복은 일반 기차 신체와 마찬가지로 물이나 용과 관련을 지니면서 생산신으로서의 기표를 보여준다.

3. 몽골의 돌 신체의 산육신적 양상

몽골인들은 유목 경제를 배경으로 자연과 조화하며 살아가는 친자연적인 삶의 태도를 중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인 생명관을 지향해 왔다. 자연의 생명은 인간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부정(不淨)하게 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했다. 특별히 돌은 땅에서 자라고 물을 흡수하여 대지의 수분을 균형있게 유지시켜 주는 살아있는 신물(神物)로 여겼다. 몽골인들은 돌 하나에도 생명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에서 돌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밭에 걸리는 돌도 차지 않으며 구르는 돌은 3년 동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다.”⁴⁴⁾라고 말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을 돌이라 부르지 않고 ‘가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특별한 뜻이 없고 다만 돌을 존송해 부르는 완곡어로 사용된 것이다.⁴⁵⁾ 이처럼 돌을 단순히 돌맹이 내지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력을 지닌 생명체로 생각했다. 몽골에는 돌을 어머니로 관념하는 신앙이 크게 발달해 있으며, 몽골 영웅서사시에서 영웅들이 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고대 자궁신앙, 바위의 다산과 생산, 풍요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

돌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뿐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수호신적 의미의 주물

43) 문화재청, 문화유산지식, <http://www.cha.go.kr>, <동자복>

44) 테. 남질(2007), 이안나 옮김, 『몽골의 가정예절과 전통』, 민속원, 272쪽.

45) 이것은 논자가 2005년 내몽골 시골 지역의 한 인가에 들렀을 때 들은 이야기이다.

(呪物)로, 몽골에서는 예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곳 주변에서 푸른색 작은 돌을 골라 주워서 아기 요람(포대기)에 달아주는 습속이 전승되어 왔다.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가 되면 그 돌을 비단끈으로 묶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으며, 조금 크면 옷에 꿰매주었다.⁴⁶⁾ 이러한 돌의 성격은 신이 깃드는 처소요, 신체인 것과도 관련을 갖는다. 몽골에는 조령(祖靈)이 돌에 깃들어, 그 후손들의 삶을 가호하고 번성과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있다.

3.1. 모성형 돌 신체

몽골의 대부분의 기자신앙과 관련된 바위의 성격은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바위신앙은 근본적으로 대지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목민이나 수렵민족 사이에서 돌은 대지모신의 뼈를 나타낸다.”⁴⁷⁾ “지모신은 주로 풍요와 다산, 다복과 관련되어 신앙시되었다. 대지는 지모신의 배로 여기며, 자궁의 의미의 모성적인 관념으로 몽골인들은 ‘대지의 젖이 붙는다’고 말하기도 한다.”⁴⁸⁾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모양의 돌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신앙시되는데, 몽골의 ‘어머니 바위’는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바위신앙의 대표적인 예이다. ‘에즈 하드’(эж хад)라는 어머니 바위는 울란바타르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티브 아이막의 세르게렝 숲에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초원에 자연석으로 있었는데, 건물을 지어 어머니 신돌을 보호하고 있다. 어머니 바위에는 날이 풀리면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은 어머니 바위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속신 때문이다. 이 바위에 거하는 어머니는 50대 정도의 여인으로 여긴다.⁴⁹⁾

46) Д. Цагаан, 앞의 책, 129쪽.

47) 진쿠버, 이윤기 옮김, 앞의 책, 334쪽.

48) 이안나(2010), 『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37쪽.

49) 이안나, 위의 책, 261쪽.

이 바위를 보호하는 재단이 있어 어머니 바위를 관리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땀아 모자를 씌워 걸으로 보아도 후덕한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 위해 정성껏 공물을 가져와 어머니께 바친다. 공물은 주로 차와 유제품, 가축의 젖이나 술 등이다. 성소에 가보면 건물 주위에 철책을 돌며 검은색의 낮은 돌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돌이 아니라 모두 치성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가져온 벽돌차(벽돌 모양의 눌린 차)이다. 어떤 이는 가지고 온 공물을 벽돌차 속에 묻어 놓기도 한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재물을 드리며 어머니께 소원을 비는데, 남자는 오른쪽 귀, 여자는 왼쪽 귀에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게 각각 세 가지의 소원을 말한다. 몽골의 다른 신앙처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곳에도 세 번을 와서 치성을 드려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3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완성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어머니 바위'에는 몇 가지 전설이 전하는데, 그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바위를 '아브개 바위'라고 했다. 옛날에 이 지역에 세 마리 푸른 염소를 가진 할머니가 살았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염소 세 마리에게서 젖이 나왔기 때문에 젖을 짜서 생활을 했다. 자신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도 젖을 나누어주며 생활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노파에게 감사하며 그녀를 덕스런 어머니처럼 여겨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밤 노파가 앓은 채로 죽어 큰 돌이 되었다. 그 노파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슬퍼하며, 그 바위를 '아브개 어머니 바위'라고 불렀다. '아브개'란 나이든 사람을 높여 부르는 칭호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드려 그 바위를 섬겼을 뿐 아니라, 남자는 오른쪽 귀에, 여자는 왼쪽 귀에 어머니만 들도록 작은 소리로 소원을 빌었다. 세 마리 푸른 염소도 주인 옆에서 세 개의 푸른 돌로 변했다고 한다.⁵⁰⁾

50) X. Сүхбаатар(2001), 『Монголын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н домог』, УБ, 269쪽.

사람이 죽어 바위가 된다는 관념은 고대로부터 몽골인들의 영혼관의 하나였다. 원초적으로 보면 돌은 탄생을 돕는 모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자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바위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식을 접지해 주는데 영험한 바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바위에 기자치성을 드러 낸 자식을 ‘어머니 자식’이라 한다. 위의 전설을 보면 노파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무당 혹은 무당의 성격을 가진 존재였다고 생각된다.⁵¹⁾ 이 어머니 바위를 제의하는 채량(박수) 밤바도르찌의 무가에 ‘좋으신 무당 어머니’⁵²⁾라고 한 것은 이를 증거해 준다.

어머니 바위가 있는 주변에는 약수가 흐르는데, 몽골의 기자 신앙처가 대개 물이 흐르는 곳에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특징의 하나이다. 몽골 서부 알타이 지맥인 흙드 아이막 도팅 슴의 계곡을 끼고 네브팅 아르샹이라는 여러 개의 약수가 흐르는데, 그 가운데 신장에 효능이 있는 약수 앞에 넓적한 바윗돌이 있다. 이 돌에 신장 모양의 문양과 또 하나의 동그란 자연 문양이 있는데, 이 동그란 모양의 문양 위에 앉으면 아기를 접지 받을 수 있다고 그곳 사람들은 말한다.⁵³⁾ 또 이 약수 주위 산 중턱에 ‘어머니 자궁 굴’이라는 바위굴이 있는데, 이 굴 역시 어머니 자궁과 동일시되어 기자(祈子) 신앙처가 되어 왔다. 몽골 동부 도르노드 아이막 다쉬발바르 슴에서 북쪽으로 가면 엠팅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의 중턱에도 자궁바위가 있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수가 흐른다.⁵⁴⁾ 이처럼 특정한 바윗돌이나 굴은 물 신앙과 함께 기자 신앙의 중요한 신앙적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제주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1) 이안나, 앞의 책, 84-85쪽.

52) Д. Бямбадорж(2004), 『Тэнгэр шүтлэгийн амин судар』, УБ, 92쪽.

53) 이안나, 앞의 책, 258쪽.

54) 위의 책, 259쪽.

‘어머니 바위’에 대한 다른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이 지역에 외아들을 둔 노파가 살았는데, 아들이 군대에 징집이 되어 떠나자 노파는 산과 영험한 아브개 바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아들이 병역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브다르 항가이 산과 아브개 바위 덕분에 너를 기다릴 수 있었다. 몇 마리 소는 잘 크고 새끼를 많이 낳아 우리에게 소가 가득해졌단다. 아브개 바위를 지성으로 섬기며 엄마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거라.”라고 이르고 죽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장례하고 아브개 바위에 가서 절하며, “지금부터 당신을 ‘어머니 바위’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 바위를 ‘어머니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⁵⁵⁾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곳에 와서 치성을 드리고 낳은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어머니에게 얼굴을 보이고 감사하는 습속이 있다.⁵⁶⁾ 이 이야기는 신령한 바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몽골인들의 돌 신앙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어머니 바위에는 해마다 한식에 무속 제의를 행해 오고 있다.

홉드 아이막 불강 솜의 부랭해르항 산기슭에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바위를 ‘어머니 바위’라고 부른다. 자연석인 이 바위는 언제든 원할 때 가서 비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⁵⁷⁾ 이렇게 ‘어머니 바위’라고 불리는 신체는 여러 소원을 들어주지만 그 가운데도 자식 포태에 영험함을 갖는다.

바위가 신체가 된 유명한 예로는 다양 데르흐와 그가 데리고 도망쳤던 공주의 석상을 들 수 있다. 다양 데르흐는 최초의 박수무당이라는 전설이 전하며, 티베트 동편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한 신령이었다고 한다.⁵⁸⁾

55) X. Сүхбаатар, 앞의 책, 268-269쪽.

56) 장장식(2005),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49쪽.

57) 이안나, 앞의 책, 269쪽.

58) 위의 책, 269쪽.

지금도 다양 테르흐는 험스걸 무당들 사이에서 ‘최고의 신성’으로 추앙을 받는 유명한 옹고드(онгод)이다. 그에 관련된 신화들은 대개 칭기스 칸의 왕비 혹은 딸을 훔쳐 달아나다 잡히게 되는 순간 돌에 스며든다는 기본 줄거리로 되어있다. 이 돌은 바위틈에 들어가 숨었다가 바위신령이 되는데, 이 공주는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포태시켜 주는 산육신이자 치병신으로 신앙시된다. 다양 테르흐에 얽힌 공주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박수무당은 다양 테레흐이다. 그는 황하의 상류인 나브칭 봄바래라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는 땅과 하늘의 선하고 악한 신들이 차별 없이 베푸는 은혜로운 마음에 힘을 얻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달라이라마와 카드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들의 내기 놀이는 3년 간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이겼느니 졌느니 하면서 다소 실랑이를 벌인 끝에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겨루기로 했다. 그 다음날 아침 달라이 라마는 천 명을 구제하였고, 다양 테레흐는 천삼백 명을 구제했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다양 테레흐에게 “자네의 능력을 알았네. 자네는 몽골로 가게나. 그곳은 자네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그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났다. …… 다양 테레흐가 몽골에 왔을 때 칭기스 칸이 자신의 딸을 헨티 칸과 결혼시키고 있었다. 칭기스 칸은 유명한 무당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궁으로 초대했다. 다양 테레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 번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잔치 자리에 갔다. 그는 차와 음식을 조금만 맛보고 가려고 했는데, 칭기스 칸이 그가 가는 것을 한사코 만류하며 좀 더 있게 했다. 그러자 무당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무당은 돌아가는 길에 궁전 문 앞에서 새색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 이름답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낚아채 안장 위에 앉히고 빠르게 속력을 내어 달려갔다. 공주도 그가 싫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일이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그의 뒤를 추격하였다. …… 몇 개의 산을 넘어 알타이 산맥의 오르모거이트 언덕 근처로 도망가는데, 칭기스 칸이 추격하여 오자 다양 테레흐는 석상으로 변했고, 공주는 테레흐 산의 동굴로 도망하여 바위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역시 바위가 되었다. 공주의 상체 모습이 '차강 호수'에 반사되어 비친다고 한다.

칭기스 칸은 돌이 된 무당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려 했지만 칼날이 무더져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 죽일 생각으로 머리 부분을 끈으로 묶어 잘라버리려 했다. 그러자 (그 돌이) “절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대왕님께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그의 소원에 따라 자비를 베풀었다. 다양 데레흐는 자기뿐 아니라 열 명의 주술사들과 함께 몽골에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 데레흐로부터 처음 박수무당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그 돌이 된 다양 데레흐는 차강 호수 부근에 보인다고 한다. 전국에서 무당들이 찾아와 다양 데레흐에 제의를 드리며 그 석상을 매우 신성시했다. 칭기스 칸의 딸은 물론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해준다 하여 마찬가지로 무당들은 그녀를 신봉했다.⁵⁹⁾

다양 데레흐와 공주의 영혼이 돌에 스며들어 신체가 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무속의 관념을 보여준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칭기스 칸의 딸 역시 무당으로 볼 수 있으며, 물과 관련하여 치병과 생산신으로 좌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양 데레흐 동굴에 가면 다양 데레흐 신앙 뒤편 오른쪽 벽면에 '에HING 오매'(‘어머니의 자궁’이란 뜻)라는 어머니 자궁 모양의 비좁은 굴이 있다. 이것은 몽골의 ‘어머니 바위’ 혹은 ‘자궁 바위’라 부르는 신앙처의 하나로, 이 굴을 통과하고 나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다양 데레흐 웅고드의 부인은 ‘아고잉 차강 에쓰’라고 불리는데, 이는 ‘동굴의 흰(신성한) 어머니’란 의미로 이 ‘에HING 오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인들은 예로부터 우뚝 솟은 바위를 숭앙해 왔으며, 특히 바위구멍, 틈이 있는 두 바위, 둥근 선형의 구멍 난 바위를 어머니 자궁과 동일시했다. 그런 바위를 ‘오메 하드’(умай хад) 즉 ‘자궁바위’라 불렀으며, 주술적 효험이

59) 데. 체렌소드놈, 이안나 옮김(2001), 『몽골민족의 기원신화』, 울란바타르대학교출판부, 172~174쪽.

있어 질병이나 고통,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해준다고 믿었다. 자궁바위 신앙은 몽골에 보편적인 자연신앙 형태의 하나로, 지금도 몽골의 여러 지역의 자궁바위가 있는데, 자식 갖기를 소원하거나 새로운 재생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흐드 아이막의 망향 숲 지역에 있는 데드 타힐트(Дээд тахилт)의 구멍이 많은 바위에는 이 지역 산천의 사브닥(산신)들이 모여들어 있다고 한다. 지역 민들은 이 바위를 어머니 자궁과 동일시하며 신앙시해 왔다. 아기를 원하는 사람, 아기가 자주 사산되거나 유산되는 부부들이 이곳에 와 바위 구멍에 기어들어갔다 나오며 흑주술을 행했다.⁶⁰⁾ 이런 자궁바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자궁바위에 들어갔다 나오는 몸이 태아(胎兒)가 되는 의례적 성격을 띠는 것, 또 하나는 일종의 성행위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궁바위는 무속 이전의 원시적인 자연신앙인 페티시즘(fetichism)과 동종주술의 형태를 띤다.

부리아트 사람들 사이에는 ‘얼기 델히 에흐’⁶¹⁾(Өлгий дэлхий эх)라는 특별한 풍속이 있는데, 이 의례에는 남자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여자들만 참여한다. 이 행사를 할 때 여자들은 ‘오매 여신’⁶²⁾(어머니 신, 혹은 자궁 신)과 같은 의미의 ‘에투깅 동굴’(지모신 동굴)에 절을 하며 자식과 재산의 복을 기원했다.⁶³⁾ 즉, 동굴이 하나의 신체가 되는 셈이다. 이는 제주의 궤와 유사

60) Б. Батжав(2004), 『Арван гурван сангийн оюун』, УБ, 89쪽.

61) 이 의례의 명칭은, ‘요람인 세상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62) 오매(умай)는 ‘자궁’을 의미하지만, ‘여신’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63) Ц. Төрбат(1997), 『Дундад зууны нүүдэлчдийн шүтлэгийн холбогдолтой нэгэн дурсгал』, 『Угсаатан судлал』 Fasc 5, УБ, 116쪽. 이것은 고구려의 동맹제에서 볼 수 있는 지모신 신앙의 하나인 수신(禰神) 신앙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조를 보면 “10월에 제사지내는 큰 모임이 있으니 그 이름을 동맹(東盟)이라 한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것을 수신(禰神)이라 부르며, 또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해 제사지낸다.”라고 했다. 『국역 中國正史朝鮮傳 1』 (1987), 국사편찬위원회, 138쪽; 『삼국지위지』 「동이전」을 보면 “그 나라의 큰 굴이

하지만 퀘와 다른 점은 인신이 아닌 자연신의 신체라는 점과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몽골의 어머니 신앙은 바윗돌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모신 신앙을 기저로 한다.

몽골에는 석인상이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헨터 아이막의 언더르 향 시 공향의 서남쪽 2~3km 지점에 '켈렝 허쇼'(ГЭЛЭН ХӨШӨӨ)라는 석인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화강암으로 된 별로 키가 크지 않은 이 석인상은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오래 전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땅은 머리는 전통적인 몽골 방식을 보여준다. '켈렝'이란 몽골어로 '비구'(比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석인상에 불교적인 색채가 윤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석인상은 불교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세습무당들의 신앙적 대상이었던 것으로 본다.⁶⁴⁾

이 석상의 특이한 점은 남성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도 민간에서 '어머니' 또는 '어머니 석인상'⁶⁵⁾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대체로 몽골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사물에는 하닥이 걸려있는데, 많이 걸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많다는 것과 크게 신앙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석인상에도 보호 철책에 빼곡히 하닥이 묶여 있고 석인상의 허리에도 묶여 있어, 현재

있는데, 그 굴을 수혈(隧穴)이라 부르며,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의 [강] 위에 모시기가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석에 모신다."고 하였다. 『국역 中國正史朝鮮傳』(1986), 국사편찬위원회, 36쪽} 일반적으로 수신을 지모신으로 보며, 수신제는 대지신앙 단계의 '오매신앙', '동굴신앙'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64) 이안나, 앞의 책, 289쪽. 몽골 국립대 무속연구가인 강터그터흐 교수는 '켈렝'은 승려란 뜻이 있지만, 이런 명칭이 붙여진 석인상들은 예로부터 몽골인들이 신앙해 오던 신앙적 대상이었으며 조상신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이렇게 깊은 연원을 가진 석인상 신앙을 불교에서 수용하여 '모든 인간과 만물에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의미의 불교 신성으로 습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험스걸 차강—우루숨의 다양 테르흐도 '켈렝'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헨터 아이막 언더르 향의 '켈렝'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65) 장장식(2003), 「몽골의 어머니신앙의 여성신격」,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104쪽.

민간에서 크게 신앙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석상도 어머니 바위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오른쪽 귀에 여자는 왼쪽 귀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석인상이다. 이 석인상 역시 산육을 돕는 신성으로 신봉되기도 하는데, “한 젊은 아낙네는 아기를 낳은 지 7일이 지났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주위의 권고로 ‘어머니석인상’을 찾았다고 한다.”⁶⁶⁾ 이 석인상이 어머니로 불리는 것은 특별히 자손을 돌보는데 영험함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2. 부성형 돌 신체(神體)

앞에서 살펴본 다양 테르흐 동굴의 석인상 역시 자식을 구하는 기자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유산하는 경우에 다양 테르흐 석상에 공물을 올리며 자식을 기원했다.⁶⁷⁾

몽골의 부성형 돌 신체의 대표적인 것은 부리아트 오이홍 섬의 13노움(신령) 가운데 보호 노움인데, 이 신령은 수소로 현현해 돌로 변한 에히레드, 블라가드 씨족의 토템이다. 보호는 수소를 의미하는데, 씨족 기원신화에는 수소 토템과 돌신앙이 결합되어 있다. 이에 관한 신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 노움은 수소로 변신해 길을 가다가 타털 왕의 소떼에 섞여 얼룩 수소와 어울려 지냈다. 수소 노움은 자기 털색을 붉은 색으로 만들고 다른 소와 뿔을 받으며 힘을 겨루었는데,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기곤 했다. 밤에는 젊은이로 변해 공주와 밤을 지내고, 낮에는 다시 수소로 변해 소 떼에 섞여 지냈다. 하루는 소치기가 “소 가운데 이상한 수소가 섞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수소와 뿔을 맞대고 싸우면 늘 이깁니다.”라고 왕에게 고했다. 그러자 왕은 몸소 소들에게 싸움을 붙였는데 자신의 수소가 저 도망쳤다. 그러자 왕은 이긴 붉은 수소를 힘껏 내리쳐 소들에게서 떼어내 멀리

66) 장장식(2006), 앞의 책, 110쪽.

67) 이안나, 267쪽.

쫓아버렸다. 건잡을 수 없이 분개한 수소는 일어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바롱 사리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돌로 변해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 뒤 공주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왕이 놀라 공주에게 물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자 공주가 “한 번은 창문으로 태양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었어요. 그러자 제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잤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라고 했다.⁶⁸⁾ 이들이 태어나자 쇠 요람에 아이를 담아 서쪽 산봉우리에 있는 돌로 변한 수소 곁에 가져다 놓았다. 그 아이는 돌 소의 배꼽을 빨며 자랐다.

그때 아소이항이라는 자식 없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게르 천창으로 물이 쏟아지자 그 주인을 막으니⁶⁹⁾, 화로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큰 불길이 오른쪽으로 일었다. 그러자 아소이항이 “내게 자식을 점지해 주십시오. 천창으로 물을 뿌리지 마시고 문을 닫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곳을 시작하자 신이 내렸다. 아소이항은 “서쪽 산봉우리에 수소 돌 가운데 쇠 요람에 아이가 있다. 내가 그 아이를 자식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며 산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돌 소는 아소이항 무당이 조금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곳을 하자 신이 내려, “말을 죽여 오른쪽 정강이 뼈를 가지고 소 앞에서 뼈를 휘저으며 흔들라.”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소이항은 산봉우리로 올라가 소 앞에서 말 정강이뼈를 흔들자 길을 내주었다. 돌 수소 안에서 쇠 요람을 꺼내려 했지만 끈이 풀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곳을 하니, 신령(웅고드)이 “오른쪽 정강이뼈 옆에 손가락을 함께 잡고 요람을 향해 흔들라.”고 일러주었다. 그렇게 하자 요람의 쇠 끈이 탁 소리를 내며 저절로 풀어졌다. 아소이항은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아이에게 불라가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⁷⁰⁾

이 신화의 주인공 보흐 노용은 천신의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불라가드

- 68) 한 변형설화에는 황소의 눈빛에 임신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에르 출템 수령(2002), 「몽골인의 소 숭배의식」, 『비교민속학』22집, 비교민속학회, 225쪽}
- 69) 웅고드(신령)가 천창으로 물을 쏟아 무당 아소이항이 신령의 하는 행동을 막는다는 의미인 것 같다.
- 70) Д. Ванчигдорж(2000), 「Бух ноён Будан хатан ээжийн шүтээн», 『Буриад Монгол чуудын угсаа』, УБ, 231~233쪽.

씨족의 조상신으로, 바위를 신체로 하여 지금까지 제향을 받는 부리아트의 대표적인 신성 가운데 하나이다. 수소로 변했던 보호 노용이 분노하여 스스로 돌로 변하고, 그 아들을 데려다 농자 아이가 돌 신체의 배꼽을 빨며 자란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볼라가드 조상의 신이한 탄생담과 성장담을 보여주는 이 신화 속의 보호 노용(신령)의 돌신체는 부정이면서도 생산과 풍요성이라는 모성적 특성을 보여준다. 아이가 신성한 돌에 버려지는 것은 민속적으로 기이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돌 신체는 수호신성으로 아이를 가호하고 그 성장을 돕는다.

몽골에는 남성 성기 모양을 기지석으로 신앙하는 풍속도 있다. 몽골 서부 잡향 아이막의 해발 4,000m가 넘는 오치르반 산 정상에 100개 이상의 노천 온천수가 흐르는데, 그곳에 약 8~90cm 정도 높이의 남자 성기 모양의 돌에 야기 옷이 입혀져 있다. 원래 온전한 성기 모양이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미신이라 하여 귀두를 깨버렸다고 한다. 한국처럼 온전한 성기 모양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돌을 그렇게 믿고,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여자가 그 돌을 타고 소원을 빌면 아이를 갖게 된다고 믿는다.⁷¹⁾

4. 제주와 몽골의 산육신적 돌 신앙 비교

제주와 몽골의 돌 신체는 돌이 단순히 영의 좌정처라는 의미를 넘어서 돌에 생명이 있다는 근원적인 관념을 내포한다. 두 지역의 산육신으로서의 돌 신체는 자연신앙을 기반으로 만물에 영(정령)이 거한다는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하지만, 몽골의 경우 페티시즘 및 원시 주술적인 신앙 형태가 좀 더

71) 이안나(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첫눈에, 154쪽.

많이 내재되어 있다. 제주의 경우, 자연석 그 자체를 신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화와 전설의 주인공을 배경으로 신체에 인격을 부여하여 신앙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몽골의 경우 인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형태를 가진 돌 그 자체를 신체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돌의 형태에 따라 명칭과 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몽골에서 인격성이 부여되는 돌 신체는 산육신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민의 전반적인 삶을 가호하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돌 신체의 형태를 보면, 제주의 경우 순수한 자연석 혹은 얼굴 모양을 조야하게 새겨 넣은 자연석, 불상 등이 신앙시된다면, 몽골의 경우 자연석이나 환형의 좁은 구멍, 굴, 양쪽이 길게 뚫어져 있는 자궁모양의 바위, 돌무지(오보), 석인상 등이 기자신체로 신앙시된다. 구멍이 뚫린 특별한 형태의 돌을 자궁바위 또는 자궁굴이라 명명하여 신앙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개별적인 인격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고대로부터 대지를 어머니로 숭상했던 몽골인들의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까지 서북부 지역의 자궁바위에서 무당의 제의가 있었던 것을 보면 페티시즘의 신앙형태가 무속의 풍요와 재생의 신앙물로 전승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제주의 돌 신체는 무속의 신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교와 유교가 습합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근간은 무속이 중심을 이루며 불교와 유교는 일종의 시대적으로 덧입는 옷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의 산육신으로서의 돌 신체는 원시 자연신앙과 무속 신앙 형태 혹은 두 가지가 혼재된 경향을 보인다. 또 불교적인 명칭으로 신체가 윤색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불교적인 부분은 매우 미약하다. 현재 몽골에는 전통적인 무속제의를 불교의 승려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자신앙에 있어서는 아직도 민간의 자연신앙 혹은 무속의 형태로 존속한다. 몽골의 기자신체는 풍요와 재생의 모계적 대지신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지역의 기자신앙의 둘 신체의 성을 보면, 제주의 경우 한라산산신인 경우 남성신이 주로 나타나고, 중산간 지역에는 남성신도 있지만 주로 여성신이 주를 이루며 신체 주변에 물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물을 신체에게 바치는 정화수로도 사용된다. 주로 수렵과 목축을 담당하는 한라산또인 남신이 산육에 관여하기도 하는 것은 한라산을 어머니로 여겼던 고대 관념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안가에는 여성, 남성신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도래신적인 요소와 함께 용신앙, 이렛당신앙과 관련을 갖는다. 어떤 경우든 기자치성의 대상이 되는 신체에는 대개 ‘미륵’의 명칭이 붙는데, 미륵은 불교와 습합된 측면이 있지만 용신앙 이외 산육 및 생사회복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칠성신앙과도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산육신의 기능을 하는 둘 신체는 거의 여성으로 나타나며, 지모신(地母神) 즉, 어머니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특별히 이러한 신체가 있는 주변에는 제주와 마찬가지로 대개 약수나 샘물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는데, 몽골의 경우, 제주와 달리 약수를 공물로 바치지 않는다.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에서는 주로 가축의 젖이나 술, 유제품을 공물로 사용한다. 부성적인 신체가 산육에 관여하는 예는 천상의 기원을 가진 부족의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리아트 무속의 신성과 몽골 무속의 최고 신성인 다양 데르흐가 있다. 이들 신체는 민간에서 기자신앙이 강조된다기보다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양상 가운데 기자신앙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자신앙의 치성방식을 보면, 제주의 경우 신체접촉을 하거나 비손을 통해 치성을 드리는 반면, 몽골의 경우 신체접촉 방식이 주를 이룬다. 제주 무속의 신체는 신령하고 타부시되기 때문에 접촉보다는 비손이 주를 이루는데, 몸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더 원시 자연신앙의 면모를 반영해준다. 몽골의 경우 신체접촉을 할 때는 성기부분 혹은 몸 전체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자궁 바위는 온몸을 사용해서 둥근 구멍을 돌아 나오는 경우와 좁은 통로를

뚫고 나온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통과의례 혹은 성교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접촉은 동종주술의 원시 신앙적 측면을 보여 준다. 몽골에는 비손의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신체에 인격이 부여될 때는 귀 부분에 대고 소원을 빌거나 신체(神體)에 머리를 대고 소원을 빈다. 치성을 드릴 때는 보통 3번 찾아가 소원을 빌어야 하는 것이 통상인데, 제주 는 몇 번이라는 횟수보다는 정해진 제일(祭日)이나 혹은 원하는 때에 치성을 드리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제주 무속에서 신성이 셋째 딸(말재딸)로 나타나거나 그와 관련된 셋째 아들이 주를 이루는 것은 3수가 창조수, 완성수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의 풍속에서 3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천지인의 삼재(三才)의 의미와 더불어 소원성취의 완전수로 인식된다.

전반적으로 두 지역의 산육신의 기능을 하는 돌 신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습합되기는 하지만 주로 자연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무속의 신앙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몽골의 돌 신체가 제주보다 원시적인 페티시즘의 성격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노마디즘의 생활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맺음말

돌은 예로부터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는 믿음과 그 효험으로 기자치성의 대표적인 신앙물로 자리해 왔다. 돌이 탄생과 죽음에 관련되는 것은 돌이 갖는 신앙·상징적 의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 동굴에서 생활했던 고대 원시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지역의 자식의 포태와 산육을 돕는 생산신으로서의 바위 신체는 주로 모신(母神)의 특성을

가지며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 작용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원형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주와 몽골의 산육신의 기능을 하는 돌 신체는 주로 무속과 관련을 맺는데, 이것은 무속이 원시 페티시즘, 애니미즘 등의 원시 자연신앙을 흡수하여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주나 몽골 두 지역 모두 삶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무속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앙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
|----------------------|
| 논문투고일 : 2011년 4월 30일 |
| 심사시작일 : 2011년 5월 20일 |
| 심사완료일 : 2011년 6월 7일 |
|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14일 |

K C I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국역 中國正史朝鮮傳 1』(1987),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中國正史朝鮮傳』(1986), 국사편찬위원회.
문무병(2002), 『제주문화예술』겨울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지회.
양영자(2009), 「통과의례와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박물관(1992), 『제주시 문화유적』.
진성기(200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사전』, 각.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gc/content>.
문화재청, 문화유산지식, <http://www.cha.go.kr>

<단행본 및 논문>

- 강정식(2006), 『제주의 신앙과 돌』, 제주돌문화공원.
김삼룡(1987),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김일권(2008), 『우리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문무병(2008), 『제주도 분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문무병 외(2008), 『제주신당조사』 제주시편, (사)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박진태 외(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에르. 출템수렝(2002), 「몽골인의 소 숭배의식」, 『비교민속학』22집, 비교민속학회.
오출세(1997), 「한국 성석신앙에 대한 일고」, 『동악어문논집』32집, 동악어문학회.
이안나(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첫눈에.
이안나(2010), 『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장장식(2003), 「몽골의 어머니신앙의 여성신격」,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장장식(2005),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장지훈(1997), 『한국고대미륵신앙 연구』, 집문당.
장혜련(2009), 『인문주간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현장답사자료집.
진성기(1980), 『탐라의 신화』, 평범사.

<국외 자료>

- 테. 남질, 이안나 옴김(2007), 『몽골의 가정예절과 전통』, 민속원.
엘리아데, 이은봉 옴김(1997), 『종교형태론』, 한길사.
진쿠버, 이윤기 옴김(2000),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테. 체렌소드눔, 이안나 옴김(2001), 『몽골민족의 기원신화』, 울란바타르대학교출판부.
Б. Батжав(2004), 『Арван гурван сангийн оюун』, УБ.
Д. Бямбадорж(2004), 『Тэнгэр шүтлэгийн амин судар』, УБ.
Д. Ванчигдорж(2000), “Бух ноён Будан хатан ээжийн шүтээн”,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ын угсаа』, УБ.
Г. Гонгоржав(2005), 『Монголчуудын чулуун өв соёл』, УБ.
Х. Сүхбаатар(2001), 『Монголын газар усны нэрийн домог』, УБ.
Ц. Төрбат(1997), 「Дундад зууны нүүдэлчдийн шүтлэгийн холбогдолтой нэгэн дурсгал」, 『Угсаатан судлал』 Fasc 5, УБ.
Д. Цагаан(1993), 『Чулуун соёл』, Өвөрмонгол.

이안나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1번지 중앙아시아연구소
전자우편 : ubanna@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stone faith of Jeju and Mongolia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nity
for bearing and raising in the body of deity—

Lee AnNa
(Kangnam Univesity)

In this paper, it is observed what are various aspects and features of the divinity for bearing and raising in the stone body of deity showed in Shamanism in Jeju and Mongolia.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of deity which functions as the divinity for conception, bearing and raising in Jeju and Mongolia are as follows.

First, the rock body of deity as the divinity of production who helps to conceive, bear and raise the child in two areas, has primari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 Goddess and a close relationship with water. Second, the stone body of deity which becomes the object of devotedly praying for the child in Shamanism of Jeju, is mainly called as 'Maitreya', which seems to have to do with the the traditional faith of dragon and also seems to have a certain relationship with a religious belief of the Great Bear(Seven Star).

In Mongolia, the body of deity which becomes the object of devotedly praying for the child, is related with the faith of Goddess Mother of the Earth, which is a religious belief of the Mother Earth ensuring production and fertility.

Third, about the divinity for conception, bearing and raising in both area all, the feminine godhood is dominative but masculine godhood is also involved in this.

Fourth, the body of deity which becomes the object of devotedly praying for the child in Jeju, has a form of the shamanistic natural body of deity, and also shows the mixed character such as being called as 'Maitreya' or enshrined in the Buddhist temple or becoming the object of rituals by Confucianism, Buddhism, Shamanism. But Shamanism has the dominative central position among those mixed religious forms, in contrast, almost natural religious form of Shamanism has the central position in Mongolia.

Fifth, the natural stone is worshiped as the body of deity in both area all, there are some type of natural stone carved with plain human faces and other type of artificial stone statues in Jeju.

In case of the Mongolia, there are almost natural stones but a certain particular form of rocks has been worshiped. Also stone (human) statue erected around the grave has the function as the Mother Goddess. There are a few different aspects of the stone body of deity which becomes the object of devotedly praying for the child but it shows essentially similar characteristics.

Key Words: Jeju, Mongolia, Shamanism, Body of Deity, Maitreya,
Faith of dragon, Mother Rock

K C I